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내러티브 기반 교과융합 인성교육*

최인자**

— < 次 例 > —

- I. 서론
- II.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 III.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형 사회·정서 학습의 절차
- IV. 결론

I. 서론

최근 융·복합 교육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아직 융·복합 교육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 방법의 하나가 아니라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급변하는 ‘초복잡’의 시대에서는 분과 학문에 국한된 지식으로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교육과 실제 삶의

* 이 논문은 35회 한국독서학회(2015. 4) 학술대회 “창의·융합 과정으로서의 독서·작문교육과 테크놀로지”에서 주제 발표했던 원고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움을 주신 토론자와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유기적 연관성,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 학습자의 개별적이고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 창조를 중시하려는 교육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학습자 중심주의나 구성주의 교육 전통에서 꾸준히 강조되던 내용이긴 하나, 교육이 복잡다단한 실제 삶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창의융합교육은 STEAM 교육”이라고 이해될 만큼 수학·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다소 교육 외적 취지에서 제도적 지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융·복합교육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삶의 실제적 문제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한 보고서(임기원, 2011)에 따르면, 요즘 새로운 경향으로 예술, 인문사회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 복지 실현 등의 추세를 보면 인문사회 예술 융합교육의 성장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글도 인성 발달(함양)의 문제에 접근하여 융복합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고, 인성교육의 방향 역시 풍부히 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대하다. 급기야 2015년 7월 인성교육 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인성교육은 문제 유발 행동에 대한 보완적 교육을 넘어서 모든 교과목에서 실천되어야 할 기본 소양 교육으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성의 개념 역시 특별한 도덕적 덕목으로부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¹⁾

1) 인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담론의 현안은 개념의 확장, 혹은 재개념화이다. 이는 ‘인성’ 교육이 기존의 덕목 중심이나 사회적 관습의 내면화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으로 도덕성을 중심을 다루어졌던 인성 개념은 사회성, 감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하여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은 인성교육의 가장 최신적인 관점(김수진, 2015: 58-70, 이인재, 2009: 7-20)으로 인성교육이 지향할 바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된 인성 개념은 교과 융합적 접근이 유의미하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아직 개별 교과와 인성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 교과 간 연계 교육이 되어야한다는 지적²⁾은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과 융합 교육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³⁾ 그 이유는 아직 개별 교과의 인성교육의 내용 요소를 통합, 연계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교과의 핵심 내용 요소에 창의 인성적 요소가 첨가되는 다소 형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성의 핵심이 조화와 전일성에 있다고 한다면(우한용·박인기, 2013), 이러한 방식은 교과 내용에 인성적 요소가 형식적으로 부가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본고는 인성교육의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교과 간 융합을 통해 인성 역량의 요소를 상호연관지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교과 학습과 학습자의 삶을 연결짓는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수진(2015),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및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차경명(2013),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윤영돈(2009). “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 범교과 학습과 도덕과 학습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덕 윤리과 교육연구, 29, 127-150. 양정실·조난심·박소영·장근주·은지용(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6.

3) 양정실 (2013)에서도 중국에는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등 개별적인 교과 인성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이 융합의 매개로 내러티브가 기능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본고에서 다룬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 정서 학습에 왜 교과융합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둘째, 그 융합의 기반으로 내러티브에 주목하고, 다양한 차원의 내러티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살피고, 셋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절차를 ‘공감’을 주제로 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실, 융합적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교육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먼저 교과를 총괄할 수 있는 상위의 인성교육 내용 요소가 학년별, 학교급별로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한다.⁴⁾ 그러나 이는 지면상 불가능하고 본고에서는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과융합의 사회 정서 학습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학습 절차로 구체화 하는데 중심을 두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는 부분은,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인성교육의 최신 경향을 내러티브적으로 접근하여 교과 융합교육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강정찬 외, 2015)가 주로 개별 교과와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면, 본고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중심으로 개별 교과 간 융합을 시도한다. 특히 이를 위해 ‘내러티브’를 사고와 상호작용,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역동성을 살리고자 한다.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인성 덕목을 모델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글은 수용과 표현, 모델화와 자기화의 역동적 조화를 꾀하는 인성교육 모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4) 싱가포르의 인성교육적 내용 요소를 상위 항목으로 하고, 교과 내용 요소를 하위로 배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2015) 참조.

II.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1. 교과 융합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

사회 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은 2000년대 등장하는 인성교육의 새로운 경향으로 학습자의 안녕감(wellness)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Keneth .W. Merrell · Barbara A. Gueldner, 신현숙 역, 2010: 28-30). 이는 학습자의 인성적 문제나 결핍의 측면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발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규범을 내면화하거나 사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다소 수동적으로 상정하고자했다면, 사회 정서 학습은 개인들이 자신의 강점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가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정체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처한 불안하고, 위태로운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인성 교육적 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올바른 삶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때, 학습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위기와 어려움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정서 학습은 그 개념상의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그 내용 요소는 대략 크게 다섯 가지를 꼽는다.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관계 관리’,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그것이다. 이를 대략 풀어서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자기 인식) 긍정적인 목적을 수립하고 성취하며(자기 관리),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며 (사회적 인식)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김수진, 2015: 59). 이러한 학습은 개별 교과별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⁵⁾ 융합교육은 실제적 삶의 맥락에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관된 제반의 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인성교육을 교과 융합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건강한 인성의 계발이라는 문제를 전경화하여 중심에 두고, 그 해결을 위해 개별 교과의 지식, 기술, 태도를 상호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성의 문제는 개별 교과의 부가적 교육 효과가 아닌 그 자체의 교육 목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의미는, 학교 현장 교육 사례를 검토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한 보고서의 사례⁶⁾를 통해 현장 인성교육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인성적 요소’를 부가적으로 대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 교육적 취지가 기존의 교육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제시한 개별 교과의 ‘인성적 요소’란 부수적인 교육 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5) 융합과 통합의 차이는 사실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융합은 내용적 통합 뿐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적,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이고, 연계를 통하여 제 3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은 융합 수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융합 수업은 실제성, 현실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6) <표 1>과 <표 2>는 양정실(2013)에서 참조하였음.

<표1>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성 관련 요소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인성 요소
(9) 다양한 삶의 모습들 ①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생활모습(예, 춤, 노래, 축제 등)을 찾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 공감 • 참여

또한, 다음 <표 2>는 ‘공감’ 과 관련된 각 교과목의 인성적 요소이다.

<표 2> 각 교과목의 인성 관련 요소

과목	‘공감’ 요소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입장 바꾸어 생각하고 표현하기 • 언어폭력 방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이나 사회문제로 인한 타인의 고통과 입장 공감 체험
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 타인 존중의 태도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표현적 특질에 미적으로 반응하고 지각하여 음악의 구성요소들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된 ‘의미’를 통찰하고 공감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정체성 및 지문화 존중하기, 문화 차이 이해 및 타문화 존중하기 • 타인을 배려한 표현 및 감상 언어 사용하기

이 표를 보면, ‘공감’의 항목은 동일한 내용이 교과별로 중첩되거나 전체적인 연관 없이 파편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국어과의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와 사회과의 ‘공감 체험’, 도덕과의 ‘타인 존중의 태도’는 유사하며, 나아가 이들 교과목의 내용을 종합해도 ‘공감’과 관련된 삶의 문제를 총체적이고 전일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인성교육이 분편화 되어 있어, 학습자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 삶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 서사를 표현하고 성찰할

기회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공감’의 문제는 복잡한 상황과 딜레마 속에 놓여 있다. 타인에 대해 공감하다보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 문제가 뒤따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고 싶다는 의식은 있지만 감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공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표현 방법이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에도 있다. 한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쉽게 공감하면서도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회적 약자나 주변부 집단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기도 하다. 이 경우는 사회적 차원의 차별과 편견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장면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인성적 가치는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이념적, 정서적 차원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천 지향적 인성교육은, 바로 이러한 실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 상황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전체’가 최종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곧, 학습자가 처한 삶의 다양한 맥락과 장면들을 다루어야 하고,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비평적 성찰과 함께 자기 삶의 문제적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서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내러티브와 교과 융합의 인성교육

이러한 방향의 인성 융합교육에서 내러티브는 매우 효용이 있다. 내러티브는 마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읽고, 만들고, 분석하고, 그것의 기술을 이해하고, 용도를 감지하고 논의하는 모든 것에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Polkinghorne, 강현석 ·이영

효· 최인자 외 역, 2009). 인성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는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 정서 학습에서 내러티브의 기능은 더욱 각별하다. 사회 정서 학습은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수행적 인성 역량을 통해 강화된다. 내러티브는 보편적 규범과 가치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나아가 행동과 태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해석적, 성찰하는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러티브를, 사고, 상호작용, 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내러티브는 삶의 전체를 연관 지어 통합함으로써 인성 관련 문제와 그 해결을 여러 차원에서 성찰,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인성 관련 문제는 실제 삶의 복잡다단한 사회적, 개인적 특수 맥락 속에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인성적 가치도, 추상적인 기능 교육이 아닌 한 그 가치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러티브 사고는 인간의 행위와 의도를 특정의 상황 맥락에 기반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상황과 장면, 인물의 의도와 감정, 사고, 관계, 도구, 갈등과 딜레마 등이 통합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간 경험의 불확정적이고 문제적인 딜레마를 다양한 가능 세계들 속에서 성찰하도록 한다(J. Bruner, 강현석·이자현 역, 1996: 337-357). 국어, 사회, 도덕, 역사, 예술 등은 바로 이러한 내러티브 도식의 전체적 요소에 융합적으로 개입하여 인성 문제를 삶의 전체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내러티브는 재구성을 통해 행위를 조정하고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내러티브의 매력은 상호작용에 의해 부단히 다시 저술된다는 점에 있다. 이 내러티

브의 가소성은 대단한 권위로 정전화된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하고 성찰하는 주체의 맥락에 따라 부단히 재구성되고,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 Bruner, 강현석·김경수 역, 2002: 97-124). 이런 점에서, 타인의 내러티브를 해석, 성찰하는 과정은 주체와 무관한 객관적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용이하게 표현하는 응답적 활동을 이끌어 스스로 개인 내면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된다. 반면, 기존의 교과 통합 인성교육은 권위있는 텍스트의 모델화 기능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자기 서사의 표현과 재구성의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내러티브가 융합의 중심이 될 경우,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자아상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내러티브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매체로서, 학습자는 내러티브를 통하여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의 조화를 추구하며, 전인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내러티브는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과 개인의 일탈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균형잡힌 정체성을 가능케 한다(J. Bruner, 강현석·이자현 역, 2002: 349-350). 그것은 문화 내의 문제와 갈등을 제기하지만 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갈등을 재의미화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러티브는 허구적 세계라는 안전한 공간이 학습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이야기 속의 인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자아 정체성의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J. Gottschall, 노승영 역, 2014: 82-85). 인성교육이 표준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적응, 내면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사회의 지배적 분위기에 의해 억압되고, 주변화되었던 인성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인성을 지향

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내러티브가 지닌 정전성과 일탈성의 균형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협상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다차원적인 속성은 교과 간 융합 뿐 아니라, 텍스트와 자아의 융합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Ⅲ.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형 사회·정서 학습의 절차

이제, 앞서 살펴본 내러티브의 사고, 상호작용, 정체성의 차원을 상호 연계하여, 역동적인 융합형 인성교육의 교수 학습 절차를 구안하고자 한다.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영역은 아니지만, 교수 학습 절차 단계별로 각 차원을 특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 절차의 모델은 독서 치료와 이야기 치료의 모형에서 원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독서 치료 중에서도 발달적, 예방적 치료의 개념은 심각한 질환적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아 발달을 위한 의미있고, 긍정적 변화의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는만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하인스와 하인스- 베리 (Hynes & Hynes- Berry, 1994)의 독서 치료 과정을 원용하도록 하겠다. 이들은 독서를 통한 변화 과정을 인식 (recognition), 고찰 (examination), 병치 (juxtaposition), 자기 적용 (application to self)의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김현희 외, 2015: 102-110). 이 단계는 내러티브 텍스트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사고'하고 '상호작용'한 뒤 자기 서사에 적용하여 '정체성'

을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내러티브의 세 차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인식(recognition)

이 단계에서는 내러티브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인성 관련 문제와 경험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식한다. 이 때, 인식의 대상은 텍스트 자체의 객관적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독자 자신의 문제,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주인공은 깊은 공감을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내용보다는 “낮선 두 사람을 깊은 우정으로 안내하는 공감의 힘이란 매우 대단하다”가 더 적합하다. 이는 텍스트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 때, 텍스트는 일종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곧, 마중물 내러티브⁷⁾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텍스트는 독자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탐구를 이끌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정서적으로 자기와 연결지어 스스로 인성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탐구의 맥락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얻는 감정적, 인지적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공감>이라는 주제⁸⁾와 관련지어 소포클레스의 비극

7) 마중물 내러티브는 다음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이야기에 주목할 만한 주제가 있는가? 2. 장면이 흥미롭거나 실제 있을법한 것인가? 3. 등장 인물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가? 4. 해결해야 할 딜레마나 갈등이 있는가? 5. 행위는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가? 6. 우리가 등장 인물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데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현덕(2013) 참조.

8) 이 주제는 사회 정서 역량 중에서 '사회적 인식'에 해당되는 주제이다. 사회적 인식

인 <필록테테스>(천병희, 2008)를 마중물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그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필록테테스는 트로이 전쟁 당시 트로이로 향하던 당시 제전을 지키던 독사에게 물려 오디세우스 등으로부터 무인도 섬에 버려졌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헤라클레스의 화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와 네오톨레모스는 무인도로 가서 그 활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필록테테스가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직접 나서지 않고 네오톨레모스로 하여금 거짓으로 그의 공감을 이끌어 활을 빼앗으라는 전략을 말해 준다. 네오톨레모스는 처음에는 오디세우스가 짜 준 전략대로 필록테테스에게 자신도 오디세우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접근하여 필록테테스의 믿음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필록테테스는 자신을 그리스로 데려다 줄 것을 굳게 믿고 고통이 급습하자 네오톨레모스에게 활을 맡기며 잠이 든다. 드디어 네오톨레모스는 조국을 승리로 이끌 활을 얻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친구의 고통을 보고 아픔에 공감하기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 활을 도로 필록테테스에게 주고 만다. 이를 본 오디세우스는 활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지만 네오톨레모스는 필록테테스에게 스스로 이 활을 가지고 그리스로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명예를 되찾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한다. 필록테테스는 여전히 그리스 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예언을 전하여 그리스 배에 올라탄다.

이 비극적 이야기는 두 인물 사이에 오고 간 공감적 행위, 사고, 감정의 의미가 선명하고 그 근원적 상황을 담고 있어 마중물 내러티브로 적합하다. 특히, 네오톨레모스가 전략적 행동으로 원래 의도

에는 '타인의 감정 상태, 타인의 상황 등을 이해하는 능력',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능력' 등의 내용 요소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정찬 외(2015) 참조

를 달성하고도 필록테테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때문에 자신의 성취를 거두고 있어 공감 장면이 극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공감의 기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2. 고찰 (examination)

다음, 독자는 자신이 인식한 문제, 감정, 의식 등이 주어진 텍스트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깊이 해석하고, 성찰한다. 여기에는 서사적 사고력이 동원되며, 수준 높은 내러티브 사고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깊은 해석으로 인성 문제를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사 세계를 중층적이고도 다양하게 이해하며, 인간 행위의 예측 불가능함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주어진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어떻게 이탈하여 문제를 만들고 해결함으로써 친숙한 세계로 포함되는지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각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도입할 수도 있다. 다음은 내러티브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내러티브 사고의 범주는 플롯짜기(emplotment)에 작용하는 상황, 문제, 갈등, 도구, 상호작용, 맥락 변인들로 이 범주에는 국어과,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등의 개별 교과(학문)의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배치된다.

범주	문제 (예시)	교과 영역과의 연관성(예시) ⁹⁾
사회 문화적 상황	네오텔레모가 친구의 활을 선뜻 돌려주지 못한 이유를 사회적 편견과 연결지어 살펴보자.	• 사회: 차별이나 회문제로 인한 타인의 고통과 입장 공감 체험

범주	문제 (예시)	교과 영역과의 연관성(예시) ⁹⁾
행위의 의도	두 인물이 서로를 대하는 행위의 의도는 주로 어떤 것인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가?	•도덕: 타인 존중의 태도
문제	두 인물들이 처하고 있는 곤경과 문제는 무엇인지, 각 인물의 입장이 되어 분석해 보자. 예) 국가를 위한 공적인 소명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와의 공감에 바탕을 둔 약속을 우선시 할 것인지?	•국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자원 (도구)	두 인물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임에도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여 자기 이익을 포기하였다. 그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또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도록 하였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국어: 공감하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감정	필록테테스의 고통을 배려하여 그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미술: 타인을 배려한 표현 및 감상 언어 사용하기
해결	-네옴톨레모스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주변시되었던 존재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공감할 수 있었는가?	•사회: 차별이나 사회문제로 인한 타인의 고통과 입장 공감 체험
의미	공감을 통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타인에 대한 공감은 각 인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도덕: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이 일련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인식한 공감 관련 문제와 정서적 반응을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에서, “공감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인식했다면, 이제는 텍스트를 통해 그러한 공감이 어떤 인물, 상황에 의해 어떤 방법과 도구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인성적 가치가 불변의 원리가 아닌 개별적 상황의

9) 공감 관련 각 교과의 내용 요소는 양정실의 연구 보고서(2013)를 참조하였음.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이다.

다음 교과융합적 특징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 영역의 내러티브를 탐구할 수 있다. 신문, 소설, 드라마와 영화, 대화 녹취들로서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에서 학생들은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인성적 사례들과 이슈를 만날 수 있다. 이 자료 내러티브들은 이 사례는 이른바 ‘실천 전통’으로서, 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실천적 지혜들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내러티브적 사고를 활성화하여 이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료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인성과 관련된 ‘실천 전통’¹⁰⁾의 문제에 주도적으로 탐구,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국어) 현진건 <고향>/ 양귀자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에 가야 한다>
 (사회) 층간 소음 갈등, 다문화 관련 이슈를 다룬 신문 기사, 국제 분쟁 이슈.
 장애인, 노숙자와의 공감을 다룬 휴먼 다큐 혹은 신문 기사!¹¹⁾
 세대 간의 갈등, 가족 내 갈등 이슈를 다룬 신문 기사
 (도덕)공감적 사고 <만델라> 전기.
 (과학) EBS 다큐 프라임 “이야기의 힘”3부작.
 (역사) <헬렌 켈러> <만델라> 전기문
 (예술) 영화 <도가니>

3. 병치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난 후, 책을 읽기 이전의 생각과 이

10) ‘실천 전통’이라 함은 합리적 논리나 개인적 실천이 아닌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사회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전통이다. 자세한 내용은 홍은숙(2010) 참조

11)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장애 대신 장점을 봐요” (동아일보, 4월 20일자 월요일)

후 변화를 나란히 대조해 놓고 살핀다. 이 변화는 문학 작품에서 발견한 개념, 상황, 등장인물, 이미지 등에서의 자기 해석 과정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의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텍스트들에서 공감과 관련된 문제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란히 나열해 본다. 예전의 것과 새로운 것, 이것과 저것의 다양한 텍스트를 나란히 비교해 좋고 나쁜 해당 문제를 더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내러티브는 언제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쟁적이고 다양한 스토리들로 되어 있다. 제시된 텍스트 외에도 여러 복수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습자 자신의 안목을 확장하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

4. 자기 적용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얻은 새로운 관점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실행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써 본다.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에 목적이 있다. 자료 내러티브로 접한 타인의 이야기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설계한다. 내러티브는 일종의 행위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에 텍스트 속의 행위는 학생들의 자기 삶을 성찰,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적용은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먼저 공감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표출하고, 해석한 뒤, 재구성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1) 자기 내러티브 표출

앞에서 서술한 문제 탐구 과정은 내러티브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담에 대한 성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이야기들에 관한 반성은 자신의 행동에 새로운 차원들을 창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공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적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한다.

2) 자기 이야기 성찰하기

이야기 치료법에 의하면 자신의 이야기 자체를 다시 성찰, 분석, 해석하여 문제를 외현화하는 일은 행동과 인지의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험적 주체로 자신이 참여할 때에는 전체적 시각을 갖지 못했음에 반해, 자기 내러티브를 객관화하여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내러티브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객관화된 시각과 대안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감과 관련된 경험 속 이야기에서 당대의 맥락, 이야기 속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 자신의 마음 속 딜레마, 자신의 감정 등은 내러티브화된 텍스트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 자체의 성찰만으로도 다른 이야기를 가능케 한다.

3) 자기 내러티브 재구성

재구성은 미래적 전망에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평가, 수정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이다. 성찰 활동은 자기 경험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감’에 대한 자기 서사를 다른 방식으로 사고, 행위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서사 활동 (다시 쓰기, 고쳐 쓰기, 바꾸어 쓰기, 등등)을 통하여 그 대안적 사고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한다.

4) 산출물 발표와 공유

재구성된 이야기는 발표와 공유 과정을 통해 그 개연성을 확인해야 한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패러다임적 사고의 객관성 대신에 ‘잘 짜여진 이야기’로서의 ‘개연성’이 중요하다. 이른바 서사적 합리성은 논증적 추론과 같이 전제와 판단의 내적 논리성보다는 문화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상호주관적인 개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 개연성은 내러티브 학습이 사회 문화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공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인성적 가치를 명료화하고, 책임을 느끼며, 나아가 상대주의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는다. 즉, 개인이 선택한 인성적 실천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 봄으로써 실천 전통 속에 입문하고,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IV. 결론

이제까지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교과 융합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주로 인성이 뿌리 내려야 할 삶의 다양한 실천적 맥락을 종합하되 자기 삶의 총체적 내러티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시안이 현장에서 진행된다면, 한 주제를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지속시키는 ‘깊은 학습’의 형태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을 내함하고 있지만, 새롭게 인성교육 이슈가 터져 나온 것은 그만큼 일상적인 교육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이유로 해결책은 바로 교과 융합을 통해 기존 교과를 활용하면서도 별도의 시간에서 장기 학습으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 정서적 역량을 증핵으로 한 교과 융합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이후에는 사회 정서적 역량의 개별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내용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별 교과의 내용 요소에서 인성교육적 항목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성 역량의 틀 속에서 개별 교과의 내용 요소를 융합하는 작업이다. 물론 이 융합교육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처럼 내용을 고정시키고 체계화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융합교육은 학습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황에 의해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인성 교과융합교육은 이후의 현장 교육적 실천과의 연계와 소통을 통해 그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강정찬·오영범·이상수(2015), 『사회정서 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 통합 설계 원리』, 『교육공학』 31, 한국교육공학회, pp.129-157.

* 이 논문은 2015. 11. 20. 투고되었으며, 2015. 11. 2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12.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12. 13.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윤경·김영래·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교육문제연구』 3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1-38.
- 고현덕(2013), 『내러티브를 활용한 통합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2013),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및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철·윤여탁·구본관·민병곤·고정희(2014), 『창의와 융합의 국어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현희 외(2015),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학지사.
- 박혜진·우신영·조고은·최영인(2012), 『내러티브를 활용한 핵심 역량 중심의 국어과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학회·국어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pp.1-17.
- 신재한 외(2013),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전략』, 교육과학사.
- 양정실·조난심·박소영·장근주·은지용(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6.
- 우한용·박인기 외(2013), 『국어과 창의 인성교육』, 사회평론.
- 이인재(2009),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이론적 토대 연구』, 『한국 철학논집』 25, 한국철학사연구회, pp.7-40
- 경명(2013),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 최영환(1999), 『국어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과교육학회.
- 천병희 옮김(2008),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숲.
- 홍은숙(2010), 『실천전통 교육관을 위한 내러티브적 인식론의 활용방안 연구』, 『교육철학』 49, 교육철학연구, pp.179-197.
- 앨리스 모건, 고미영 역(2010),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청록.
- kieran Egan, 김희용·곽한영·김인용 역(2014), 『깊은 학습- 지식의 바다로 빠진다』, 학지사.
- Carol Laurizen, Michael Jaeger, 강현석 외 역(2007),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

과 실제』, 학이당.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이영효·최인자 외 역(2009), 『내러티브, 인문과 학을 만나다』, 학지사.

J. Bruner, 강현석·이자현 역(1996),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J.Gottschall, 노승영역(2014), 『스토리텔링 애니멀 : 인간은 왜 그토록 이야기에 빠져드는가』, 민음사.

J. Bruner, 강현석·김경수 역(2002),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Kenneth w. Merrell, Barbara A. Gueldner, 신현숙 역(2011), 『사회정서학습』, 교육과학사.

■ 국문초록

사회 정서 학습을 위한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 인성교육

최인자

본고는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의 모델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과의 연계가 바람직하지만 개별 교과별 교육보다는 교과간 융합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 융합의 매체로는 내러티브가 적합하다. 이에 내러티브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내러티브는 인성이 운용되는 삶의 여러 차원을 융합적으로 성찰,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내러티브는 재구성성을 통해 행위를 조정하고,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내러티브를 통하여 사회와 개인이 조화를 추구하며, 전인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공감’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 교수 학습의 절차는 독서 치료에서 독서로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습 과정을 원용하였다. 인식 (recognition), 고찰 (examination), 병치 (juxtaposition), 자기 적용 (application to self)의 네 단계가 그것이다. ‘인식’은 마중물 내러티브에 대한 지적,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인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찰’은 그 문제가 마중물 내러티브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심층 해석을 통해 성찰하되, 다양한 사회적, 예술적 내러티브로 확장하여 탐구하며, ‘병치’는 자신의 내러티브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비교 양상과 다양한 텍스트들의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인식의 확장,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자기 적용’의 단계에서는, 앞의 인성 문제를 자기 삶의 내러티브로 표출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한다.

[주제어] 사회정서 학습, 내러티브, 교과융합교육, 독서치료, 공감

■ Abstract

Narrative Based Subject-Integration Character Education For the Social Emotional Learning

Choi In Ja

This article develops a model of narrative based subject-integration character education for social emotional learning. The subject-integration character education is more efficient than the individual subject education for children's character building." Because the subject-integration education can deal with the problem of all aspects of the learners' personality.

And the narrative can be considered with medium for the integration. This essay claimed three value of narrative in the subject-integration character education. First, the narrative is able to integrate the various dimensions of life associated with character development." Second, the narrative is able to be constructed and be reconstructed based on individual narratives. With this, the student change and increase their awareness their mind for meaningful growth. Third, the narrative can be completely integrated into an individual and generate harmon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his essay suggested the teaching model of narrative based character education. The thema of this program is 'sympathy'. The procedure of the learning and teaching is to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ading therapy principle, which will expedite meaningful changes for individuals, such as recognition, examination, juxtaposition, and adjustments to the self.

[key words] social emotional learning, narrative, subject-integration education,
reading therapy, sympathy